



5면

"우리는 미래 파트너"

# 전주매일

2022년 4월 5일 화요일 (음 3월 5일) 제299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북 관광생태계 활성화 '청신호'

### 도, 문체부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공모 선정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협약 등 거쳐 7월 센터 개소

전북도와 (재)전북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2년도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5년간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공모선정을 위해 전북도와 (재)전북도문화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는 계획수립에서부터 최종 선정에 이르기까지 협업해 또 하나의 성과를 일궈 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은 지역 기반 관광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전문상담, 교육 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창구 운영, 공유 사무공간 입주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출발했다.

앞으로,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해 관광창업기업 입주 사무공간과 교류 공간 제공, 관광 창업초기기업 성장 지원, 전통적 관광기업 도약 지원, 일자리 창출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운영한다.

도는 국내 대표 관광자원인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지역센터를 구축해 관광벤처기업들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

고, 도내 기업과 디지털 기술 보유기업 연결 지역 혁신 여행상품 공모전 등 다채로운 지역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와 (재)전북도문화관광재단은 관광공사와 업무협약(4월 예정), 기반 시설 구축 과정 등을 거쳐 7월에는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총괄로서 센터 추진방향 정립 및 관리·감독을 맡고, 한국관광공사는 운영주체로서 지역관광기업 지원 사업, 사업추진 및 운영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며, 전북도는 센터구축·운영을 주관하며, (재)전북도문화관광재단은 센터구축·운영의 실제적인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윤동욱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가 최종 선정됨으로써 전북도 관광산업 생태계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과 함께 생태 문명시대, 여행체험 1번지 전북도 실현에도 한 발 더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아중저수지 일대 벚꽃 '만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4일 전주시 아중저수지 일대에 벚꽃이 만개해 있다.

## 봄 행락철 대비 관광 시설물 안전점검

### 전북도, 오늘부터 12일까지 출렁다리 등 11곳

전북도는 봄 행락철을 맞아 5일부터 12일까지 관광지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 행락철을 대비해 관광객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출렁다리·케이블카·짚라인 등을 집중 점검.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민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출렁다리 7개소, 케이블카 3개소, 짚라인 1개소 등 11개소로 점검반은 토목·전기·기계 등 각 분야의 안전관리자문단과 유관기관, 도·시군 등 민관합동으로 구성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출렁다리의 경우 ▲주탑의 보강여부, 케이블 정착부 등의 구조적 이상여부, ▲난간 등 안전

시설의 견고성 및 관리상태, ▲교량받침의 손상 여부 등이며, 케이블카와 짚라인은 ▲삭도시설 장치의 작동상태 등 안전성 여부, ▲전문기관 정기검사 시행 및 종사자 교육실시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해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양원 도 도민안전실장은 "봄 행락철을 맞아 관광객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출렁다리 등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원예산업 종합평가 '최우수'

### 전북도, 농식품부 주관 평가서 4년 연속 선정 시군서 익산·임실, 품목광역조직서 농산 '1위'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원예산업 종합평가 이행실적 연차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원예산업 종합계획'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원예농산물의 생산·유통 종합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통합마케팅 활성화 5개년 계획으로, 이번 이행평가는 본 계획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부정책과의 효율적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14개 광역·기초지자체와 11개 품목광역조직을 대상으로 계획 이행노력, 생산·유통분야 3개 항목 5개 지표에 대한 목표 대비 달성도를 평가했다.

도는 이행실적 평가가 실시된 지난 2019년 이래 4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아 농산물 통합마케팅 선도 지자체임을 입증했다.

시·군 부문에서는 104개 지자체 중 익산시, 임실군이 1위를 차지했으며, 품목광역조직 분야에서는

11개 조직 중 김제 소제(쥬농산)이 1위, 부안마케팅이 2위를 차지했다.

전북은 13개 지자체와 2개 광역조직이 가장 높은 A등급에 선정됐으며, 2023년 산지유통 국비사업 우선 선정 자격과 산지유통활성화 자금 470억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확보하게 됐다.

특히, 도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합마케팅조직의 원예농산물 매출액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4,500억원을 기록했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성과는 삼락농정, 제값 받는 농업의 일환으로 꾸준히 추진해온 산지 통합마케팅 정책의 결실"이라며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새 것을 만들어 내는 연구자신의 자세로, 새 정부의 디지털 혁신 방향과 유통시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전북도의 농산물 유통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소상공·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8차 납부유예

### 도, 12일부터 6월 말까지

전북도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8차)를 추가로 시행한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8차)를 추가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올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 가능하도록 해 일시적인 요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납부유예는 오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이 필요하다.

김명진 도 에너지관리팀장은 "이번 8차 납부유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등 1만8,428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마감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도 추가로 시행한다. 공급중지 유예기간은 6월까지이다. /유호상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